



남원춘향제전위원회가 지난 축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몽룡놀이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남원 몽룡놀이터로 봄 소풍 가요

춘향제전위원회, 가족단위 관광객위한 준비 나서

남원춘향제전위원회는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제89회 춘향제를 광한루 60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기념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한 가족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축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몽룡놀이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몽룡놀이터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복화술사가 펼치는 복화술쇼 ▲만화의 한 장면처럼 다양한 요술종선으로 만들어지는 미술공선쇼 ▲어린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창작인형극 ▲공선아티스트의 길거리 퍼포먼스 등 가족단위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익살스러운 광대연기 ▲신비로운 요술 지팡이를 든 마술사, 세계대회에서 수상경

력을 가진 외발자전거 아티스트 공연이 ▲별별 서커스 공연장에서 어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미니가차, 에어바운스, 체험부스 같은 상시놀이터를 운영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춘향제전위는 이밖에도 어린이들이 보고, 만들고, 느낄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해 축제 만족감을 높여줄 방침이다. 또한 몽룡놀이터에는 안전전담 요원을 상시 배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춘향제 홈페이지(<http://chunhyang.org>)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태권도, 다시 힘차게 도약

국기 지정 1주년 기념 포럼 29일 개최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 1주년 기념 포럼이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포럼에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이동섭 총재(9단, 바른미래당) 및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소속 의원을 비롯해 태권도진흥재단·국기원·대한민국태권도협회·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태권도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많은 태권도인들의 바람과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통과된 태권도법 개정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기 지정 후 태권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용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의 기초강연과 정부의 국기 태권도 육성정책 방안(김성은 문체부 스포츠유산과장) 국기 태권도를 위한 도상 활성화 방안(김지숙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발표에 이어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이자 전 세계에서 수련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지난해 3월 30일 이동섭 의원의 대표 발의에 여야 228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며 통과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인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로 거듭난 바 있다. 포럼의 주관단체인 태권도진흥재단 관



계지는 "태권도의 국기 지정은 태권도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써 앞으로 정부와 태권도계가 협력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국기원(이사장 홍성천)·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장용갑)가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국회의원태권도연맹(총재 이동섭)·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후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랑으로 행복한 시민, 공감문화도시 정읍"

사단법인 들레, 내달 1일과 2일 상삼마당 후후 '벚꽃축제' 열어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인 사단법인 들레는 내달 1일부터 이틀 간 '상삼마당 후후 벚꽃축제 공감' (이하 '상삼마당 후후')을 진행한다. '상삼마당 후후'는 이달 30일부터 열리는 벚꽃축제 기간에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 야외특설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공연에서는 '실버를 노래하다-실버벨', '정읍거리노래의 장-정거장', '정읍시민콘서트-하울링', '댄스아카데미-춤다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삼마당 후후'는 시민 참여형 공연이다. 시민이 관객이자 실연자로 참여한다. '실버

벨'은 실버 공연자들의 난타·라인댄스·한국무용·기체조·색소폰·합창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정거장'은 정읍 벚꽃축제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래방 기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점수받아 진행된다. '하울링'은 정읍 시민만으로 구성된 팀들의 음악 콘서트로 열린다. '춤다락'은 정읍 청소년 댄스팀들이 유명 안무가의 교육을 거쳐 무대에 오르는 공연으로 구성된다. 유명 개그맨 김재욱과 정범균, 최고의 안무가 제이블랙 등 행사를 빛낼 출연진의 공연도 마련된다. 사단법인 들레 안수용 이사장은 "사랑으로 행복한 시민, 공감문화도시 정읍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 더욱 활기찬 정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한지 공예대전 출품작 공모... 총상금 2200만원

전주시가 '전주 한지' 세계화를 위해 제25회 전국한지 공예대전 출품작을 5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출품 부문은 전통(지호·지승·색지·지장·지화·부채·수록지 등), 현대(한지조형·의상·다종이 인형·한지 그림·한지 부조·낙화 등), 기타 부문(문화상품·민화포함·창작 한지 등)으로 3개 부문이다. 출품 자격은 국내·외 제한이 없으며, 시상식은 전주한지문화축제 개막식 당일인 오는 5월 4일 진행된다. 총상금 2200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아울러 대회 입상작은 전주한지문화축제 개막일인 5월 4일부터 6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축제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한지 공예대전 사무처로 문의하면 된다. 전창호 운영위원장은 "한지의 분향인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한지 공예대전은 공모전이



갖는 정통성과 역사가이 대회를 거듭할수록 그 열기와 함께 고조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대회 위상을 높여 명실공히 전국 대표 공예대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